메트로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제3085호 www.metroseoul.co.kr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제3085호 www.metroseoul.co.kr

FA-50 전력화 행사서 경례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 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FA-50 전력화 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산 전투기인 FA-50 전력화와 관련,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애견 위한 IT 이색서비스 봇물

옷·미용·납골당 서비스는 기본, 전용 케이블 등장
운동량측정 목줄, 실종 대비 위치추적 고리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11세 된 코카스파니엘 품종의 강아지 '구름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애견 전용 케이블 채널을 시청한다. TV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강아지들이 초원을 뛰어 노니는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구름이의 주인 김예현(44)씨는 아내와 함께 집을 비울 때가 많아 애견 방송에 가입했다. 김씨는 "구름이를 집에 혼자 두기 미안했는데 TV라도 틀어주니 마음이 놓인다"면서 "애견 전용 채널에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름이가 집중해서 본다. 특히 자신과 체구가 비슷한 강아지가 나올 때 주의깊게 TV를 쳐다 본다. 일반TV에 관심이 없는 것과 달리 신기하다"고 말했다.

애견 전용 채널, 강아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견 인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IT 이색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30일 애견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애견 인구는 최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란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다. 강아지 의류, 강아지 미용실, 강아지 납골당 등의 생활 서비스에 이어 IT 업계도 통신 기술을 살린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애견 IT 서비스는 강아지 전용 케이블 채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를 위한 맞춤 방송이 등장한 것이다. 사람들의 대화 모습이 주로 담긴 일반 방송과 달리 애견 채널은 강아지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온다. 공을 갖고 놀거나 잔디밭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들 애견 방송은 애완동물전문가와 동물심리학자들이 참여해 실제 강아지들이 느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작된다.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의 불안함을 완화하기 위해 애견 방송은 편안함을 주요 테마로 삼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CJ헬로비전이 국내 최초로 '도그TV'를 선보인 이래 SK브로드밴드, KT 올레tv, 티브로드, HCN 등에서 잇따라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애견 방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 애견 방송은 미국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회사별 차이점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결합 상품으로 차별화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강아지들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TV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그TV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가입자가 많아 홈 CCTV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통계에 따르면 도그TV는 서비스 7개월여 만에 4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 이는 월정액과 일정액 상품을 합친 수치며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강아지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개발되고 있다. 강아지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목줄, 실종을 대비한 위치추적 고리 등이 상용화되는 것이다. SK텔레콤 앱세서리 공모전 수상작 스마트 애견 목걸이는 강아지의 비만과 스트레스 정도를 주인에게 알려준다. 이밖에 강아지 위치추적을 돕는 NFC·블루투스 기반 인식표도 인기다. 이 제품은 강아지 몸에 생체 칩을 탑재할 필요가 없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자궁경부전암 치료 길 열렸다

국내 연구팀, 치료백신 1상 임상시험 성공

수술로만 완치가 가능했던 자궁경부전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성영철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팀과 김태진 제일병원 교수팀은 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DNA 치료백신(GX-188E)'을 투여하는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7명(78%)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자궁경부전암이 완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암 2위인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전암 단계를 거쳐 발병하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원인이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전암의 치료는 자궁경부 병소를 제거하는 원추절제수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100% 없어지지 않으면 재발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70%가 넘는 유효성을 가진 자궁경부전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처음이며 수술 대신 주사를 이용해 간단하게 감염된 세포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 교수는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을 신속히 상용화해야 한다. 치료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HPV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다른 암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종섭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팀의 주도로 치료백신의 2상 임상시험이 현재 시작됐으며 이 연구팀은 2015년 유럽과 미국에서도 2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논문은 저명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됐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이 주의 개봉작

나의 독재자

장르: 드라마/감독: 이해준/출연: 설경구, 박해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명 배우 성근은 회담 리허설을 위한 김일성의 대역 오디션에 합격해 필사적으로 역할에 몰입한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지만 그는 김일성 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로부터 20년 뒤, 아들 태식이 빚 청산을 위해 아버지를 찾아간다.

소리굽쇠

장르: 드라마/감독: 추상록/출연: 조안, 김민상, 이옥희

일제강점기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중국으로 끌려간 소녀 귀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귀임은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혔다. 70년 동안 중국에서 유일한 희망인 손녀 향옥을 간절히 기다릴 뿐이다.

서울연애

장르: 멜로·로맨스/감독: 최시형, 이우정, 정재훈/출연: 고현, 박주희, 구교환

한 가지 이야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서울과 당신의 연애 이야기. 버스 전용 차선에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골목길 가로등 밑에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몰랐던 서울의 풍경과 함께 한 여섯 편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웨스턴 리벤지

장르: 웨스턴/감독: 크리스티안 레브링/출연: 매즈 미켈슨, 에바 그린, 제프리 딘 모건

7년 만에 만난 아내와 아들을 눈 앞에서 잃은 존. 모든 것을 잃은 존은 범인을 처단한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 델라루는 하나 뿐인 동생을 죽인 존을 잡기 위해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를 기회로 마델린은 잔혹한 델라루에게서 도망치려 한다. /장병호기자

달콤 쌉싸름한 첫사랑

이 주의 선택

일본 청춘영화 특유의 낭만과 감성 담아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모모세, 여기를 봐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아련하게 만든다. 설렘과 기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풋풋하지만 서툰 감정들이 그 안에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30일 개봉한 '모모세, 여기를 봐'는 그런 첫사랑의 감성을 스크린 가득 담아낸 영화다.

영화는 첫 소설로 촉망 받는 작가가 된 노보루(무카이 오사무)가 모교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1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노보루는 학창시절 퀸카로 불렸던 칸바야시 선배를 만나면서 과거의 추억에 빠져든다. 마음 한편에 묻어뒀던 첫사랑의 기억이다.

그 시절의 노보루(타케우치 타로)는 스스로를 '레벨2'에 불과하다고 말하던 내성적이지만 순수한 소년이었다. 어느 날, 인기 많은 킹카이자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미야자키 선배를 만나러 간 노보루는 단발머리가 매력적인 동급생 모모세(하야미 아카리)를 소개 받는다. 칸바야시와 모모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미야자키는 노보루에게 모모세와 사귀는 척 연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렇게 노보루는 모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낀다.

영화는 노보루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극적인 사건 대신 독특한 플롯으로 흥미를 자아낸다. 이미 끝나버린 첫사랑을 떠올리는 현재의 노보루와 첫사랑의 감정에 서서히 빠져드는 과거의 노보루의 모습이 교차하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영화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눈부신 자연광으로 담아낸 노보루와 모모세의 과거 에피소드는 일본 청춘영화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속일 수 없다. 노보루와 모모세의 감정은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그 감정은 어느새 진실이 된다. '나쁜 남자' 미야자키만을 바라보는 모모세, 그리고 그런 모모세를 향한 노보루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넘어 호감이 되고 사랑으로까지 이어진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노보루와 모모세의 모습은 서투름 때문에 시작도 채 하지 못하는 첫사랑의 아픔을 잘 보여준다. '모모세, 여기를 봐'라는 제목에는 첫사랑의 시린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간다. 마음 깊이 남은 첫사랑의 아픔은 세월과 함께 서서히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기 마련이다. 달콤 쌉싸름함으로 첫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모모세, 여기를 봐'의 마지막 장면은 오랜 여운을 남길 것이다. 전체관람가.

HOT SCREEN

극장가 비수기 끝나는 11월

'인터스텔라' '패션왕' 등 대작들 대거 개봉

10월 극장가는 유난히 한산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거 극장가를 찾았으나 관객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극장가의 비수기는 오래 가지 않을 전망이다. 다가오는 11월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대작들이 대거 개봉하기 때문이다.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은 다음달 6일 개봉하는 '인터스텔라(사진)'다. '다크 나이트' 3부작과 '인셉션' 등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는 지난 28일 있었던 언론시사회에서 첫 공개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만의 상상력과 압도적인 비주얼로 호평을 받았다.

'인터스텔라'에 맞서는 한국영화는 '패션왕'이다. '인터스텔라'와 같은 6일 개봉한다.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꿈도 없는 고등학생 우기명이 진정한 패션왕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렸다. 온라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웹툰 원작, 그리고 주원, 설리, 안재현, 박세영, 김성오 등 청춘스타들의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달 13일에는 한국과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흥행 대결이 펼쳐진다.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천우희 등은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카트'로 극장가를 찾는다. 실화 바탕으로 가슴 뭉클함을 담은 사회 드라마다. 같은 날 개봉하는 '아더 우먼'은 카메론 디아즈, 케이트 업튼 등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다. 칸영화제가 주목한 신예 김태용 감독의 '거인', 옴니버스 청춘영화 '레디액션 청춘'도 이날 개봉한다.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할리우드 대작들이 공세를 펼친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전쟁영화 '퓨리',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판타지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다음달 20일 개봉을 확정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으로 짐 캐리가 주연한 '덤 앤 더머 투'도 다음달 27일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김상경 주연의 가족 드라마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박용우, 김서형, 이유영 주연의 '봄' 등이 다음달 20일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주말엔 본·방·사·수

새로운 스타 모델은 누구?

'도수코' 톱3 "영광이지만 꼬리표는 원치 않아"

한승수

황기쁨

이철우

새로운 톱모델 탄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다음달 1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되는 온스타일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가이즈 앤 걸스' 최종회에서는 새 톱모델이 결정된다.

지난 2010년부터 신인 여자 모델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이하 '도수코')는 올해 시즌 최초 남녀 혼성 대결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한승수, 황기쁨, 이철우가 톱3에 올랐다.

'도수코 가이즈 앤 걸스' 톱3 중 남성 모델이 2명이나 올라 시즌 최초로 남성 우승자가 탄생할지 아니면 황기쁨이 여자 모델 우승자의 대를 이을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한승수, 황기쁨, 이철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도수코'는 신인 모델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도수코 출신'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 세 사람은 이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황기쁨은 "'도수코' 톱3 출신이란 사실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즌 최초 남성 우승자 타이틀을 눈앞에 둔 이철우는 "'도수코' 톱3가 모델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활동할 때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싫다"며 "더 열심히 해서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철우와 함께 남성 우승자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한승수도 "'도수코'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좋았다"며 "톱3라는 것 자체보다는 거기에 오르기까지의 경험이 더 도움이 됐다. 나중에는 내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도수코'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게 알리기는 쉽다. 그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 사이의 갈등이나 에피소드 등이 재미요소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델에게서는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우승자 내정설' 등 루머도 떠돈다.

김헌주 PD는 "루머에 대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의식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남자 모델 내정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승수, 황기쁨, 이철우는 앞선 10회 미션에서 각각 3회, 1회, 2회씩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 우승자는 총 상금 1억 원과 W 매거진의 표지모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도수코'는 미국 인기 리얼리티 '도전 수퍼모델'의 한국판이다. 지난 2010년 9월 첫 시즌을 시작했다. 역대 우승자 이지민(시즌1), 진정선(시즌2), 최소라(시즌3), 신현지(시즌4)는 물론 송해나·고소현·김진경·정호연·황현주·박슬기 등 여러 모델들이 패션계는 물론 방송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알고보는 TV

한예슬 "3년 전 도망, 성숙한 계기"

'미녀의 탄생' 주말 안방 충전… "외모 희화화 없다"

배우 한예슬이 일명 '도망 사건' 이후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으로 돌아왔다.

한예슬은 3년 전 KBS2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 중 미국으로 도피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한예슬은 "뻔한 이야기지만 성숙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살다 보면 인생의 시련이 오는 거 같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다"고 3년 전 일을 회상했다.

이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다. 심사숙고한 뒤 좋은 작품을 선택해 시청자에게 인사한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집중해달라"고 각오를 전했다.

'미녀의 탄생' 이창민 감독은 이날 "한예슬의 여권을 들고 왔다"며 "드라마 찍는 동안은 도망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작품에서 한예슬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살림의 여왕 사금란을 버리고 전신 성형 수술을 감행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사라는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영락없는 아줌마인 반전 캐릭터다.

이번 작품은 캐릭터와 관련해 영화 '미녀는 괴로워'와 비슷한 설정, 그리고 미(美)의 상품화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예슬은 "무조건 '예쁘면 인생이 핀다'라는 주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금란에게 성형은 남편의 배신과 '예뻐지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며 "극 전개를 보면 한태희(주상욱)와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태희는 사라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 부분이 부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신 성형을 하기 전 사라인 사금란 역을 맡은 하재숙도 이날 "나름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출연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감독님에게도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은 게 희화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약속해주셔서 믿고 촬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녀의 탄생'은 사라가 벌이는 복수와 사랑,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내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내달 1일 토요일 오후10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SBS 새 주말극 '미녀의 탄생' 한예슬. /SBS 제공

모든 수록곡 사랑받는 '힙합 명반'

주말엔 이 노래

정규 8집 '신발장' 활동 중인 에픽하이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규 8집 '신발장'의 인기가 뜨겁다. 30일 가온차트에 따르면 44주차(2014년 10월 19~25일) 디지털종합차트·다운로드차트·스트리밍 3개 부문에서 타이틀곡 '헤픈엔딩'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또 더블 타이틀곡 '스포일러', 선공개곡 '본 헤이터' 등 수록곡 전곡이 20위권에 안착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멤버 투컷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록곡 모두 온라인 차트 상위권 "오랜 공백에도 팬들 사랑에 감사"

◆ 오랜만에 발표한 앨범이다. 타이틀은 물론 수록곡도 사랑받고 있는데 무척 기쁘겠다.

"슬럼프를 겪어서 앨범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2년 정도 걸려 만든 음반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나는 슬럼프 때문에 잠적하기도 했었다." (미쓰라)

"사라진 미쓰라 잡으러 가서 자리에 앉히는 데 1년 걸렸다(웃음). 작년에 데뷔 10주년 앨범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10주년에 아무 것도 안한 팀은 우리밖에 없다. 21일에 음원이 나오고 22일에 앨범이 나왔다. 11주년이 되는 10월23일 자정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11주년을 함께 맞이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블로)

"반응을 떠나 활동 자체가 즐겁다. 팀으로 돌아와 앨범도 내고 방송도 하고 공연도 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기까지 하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투컷)

◆ 미쓰라의 슬럼프 때문에 앨범이 늦게 나온 것인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서 우울해졌다. 10년 동안 음악 해온 걸 돌아보니 앞으로의 부담감이 커졌다. 전 앨범이 내 예상과 달리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갈렸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연당했느냐는 질문도 있지만 '실연'이 아니라 '시련'이다(웃음)." (미쓰라)

"미쓰라 때문에 늦은 건 아니다. 셋 중 한 명은 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10년 동안 그러했다. 한 명이 힘들면 나머지 둘이 그를 업고 뛰는 거다. 내가 힘들었을 때는 투컷과 미쓰라가 그렇게 해줬다. 덕분에 우리 팀이 11년째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미쓰라의 슬럼프가 우리 앨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기도 싫다. 좋게 말해서 슬럼프지 게으름이다(웃음). 아주 짧은 소절의 가사도 8개월 걸려서 써왔다." (타블로)

◆ 앨범 커버가 독특하다. 발레리나가 토슈즈를 묶고 있는데 힙합 앨범이라기에는 참 예쁘다.

"발레는 무척 아름다운 춤이다. 하지만 발레를 추기 위해 신는 토슈즈는 고통이 뒤따른다.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고통스럽다는 점에서 삶을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앨범 커버에 빨간색의 '19세 미만 청취불가' 딱지가 붙었는데 그게 참 묘하게 어우러진다. 그래서 '19금 딱지'마저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본다." (타블로)

◆ 앨범 제목은 왜 '신발장'인가.

"집에서 나설 때 인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신발장이다. 매일 만남과 이별을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중요한 곳이지만 소외받는 곳이다. 이번 앨범 노래들이 특히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신발장을 정리하다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발장'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타블로)

◆ 선공개곡 '본 헤이터' 가사가 무척 흥미롭다.

"헤이터(hater)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척 많다. 악플러도 해당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선배나 인생의 훼방꾼 그런 모든 존재들이 해당된다. 내 가사 첫 부분이 '아임 어 본 헤이터'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헤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타블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가사를 썼다." (미쓰라)

◆ 타블로는 가사를 마치 문학작품처럼 쓰기로 유명하다.

"그런 칭찬은 부끄럽다. 어릴 때부터 그냥 글을 썼다. 글 쓰는 게 가장 즐거웠고 지금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블로)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잘 하게 되는 것 같다. 타블로를 보면 어쩌다 봐도 늘 무언가를 쓰고 있다. 그게 쌓여서 가사로 표현되는 것 같다." (미쓰라)

◆ YG 엔터테인먼트로 옮기고 나서 작업 방식에 변화가 생겼나.

"YG로 옮긴 뒤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작업 환경도 변화가 없다. 지난 앨범 '열꽃' 말고는 엔지니어도 1집부터 작업한 분과 늘 함께했다. 양현석 대표님이 YG에 있는 작업실을 못 쓰게 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곳에 가서 음악을 만들라고 했다. 에픽하이 고유의 색깔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조금 섭섭했다. 작업실 때문에 회사 쪽으로 이사까지 왔는데(웃음). 이동시간이 도리어 길어져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타블로)

◆ 타블로는 '쇼미더머니3'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방송 출연이 잦아졌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하니까 내가 래퍼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은 내가 음악활동을 잘 안하니까 모르시더라. '쇼미더머니'에 나가니 '하루아빠가 랩도 하네'라는 반응이라 재밌었다. 방송 활동이 앨범 흥행에 도움을 줬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른 부분에 실례하는 느낌이다.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은 물론 여러 힘이 합쳐진 덕분이라 여긴다." (타블로)

◆ 이제 힙합이 주류 음악에 완벽하게 안착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말은 4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들었다. 정말 그러한가?" (타블로)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박은지

ㅊ

첫운전

[First Driving]

명 ❶ 생애 처음 자동차를 움직여보며 안전에 대해 배워보는 일

어린이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보며 교통안전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오토파크'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합니다

**{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는 현대자동차그룹 }**

중동 원정… 누가 낙점?

슈틸리케 감독 '박주영 카드' 만지작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동 원정 평가전을 앞둔 가운데 태극마크를 달 선수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다음달 14일 요르단, 18일 이란과의 평가전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오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연 축구팬의 이목은 박주영(29·알 샤밥·사진)에 쏠리고 있다.

이번 중동 원정 2경기는 올해 대표팀이 갖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가동할 전술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다. 이와 함께 12월9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예비명단 50명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자리기도 하다.

K리그 일정을 고려해 해외파 선수들, 특히 중동리그에서 뛰는 태극전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이 부상으로 이번 시즌을 접은 상태여서 이들을 대체할 공격수가 급한 상황이다. 이에 스트라이커로 박주영과 이근호(알 자이시)가 물망에 올랐다.

박주영은 10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문 구단 알 샤밥과 계약하며 새 둥지를 찾았다. 지난 18일 데뷔전에서 골을 터트렸고 25일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당시 '꾸준히 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선발 원칙으로 내세웠다. 알 샤밥 입단 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주영도 이같은 슈틸리케 원칙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두 경기 모두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것이 걸린다.

이근호·남태희(레퀴야)·조영철(카타르SC) 등은 중동 무대에서 확실히 입지를 다져 이변이 없는 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이 검증이 덜 된 원톱 박주영을 뽑을지 이미 검증된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관심사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30일

팀					합계
동부	12	30	17	14	73
전자랜드	20	13	8	22	63

팀					합계
인삼공사	18	17	14	19	68
오리온스	9	19	21	10	59

프로배구 전적 30일

GS칼텍스	2	3	현대건설
우리카드	2	3	한국전력

PO 3차전 넥센, LG 꺾어

오재영 10년만에 포스트 시즌 승리
강정호 첫 솔로포 쾅!… KS 보인다

넥센 히어로즈의 한국시리즈(KS) 진출이 1승 앞으로 다가왔다.

넥센은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승제) 3차전 LG 트윈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오재영의 호투와 강정호·유한준의 홈런에 힘입어 6-2로 승리를 거뒀다.

선취점은 넥센에서 나왔다. 강정호는 0-0으로 맞선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LG 선발 코리 리오단의 146㎞짜리 패스트볼을 받아쳤고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강정호의 포스트시즌 통산 첫 홈런이었다.

선발 오재영은 6이닝 동안 3안타와 사4구 세 개를 내주고 삼진을 2개를 곁들여 1실점만하는 빼어난 호투로 팀에 승리를 안겼다. 오재영이 포스트시즌에서 승리를 챙긴 것은 현대 유니콘스 소속으로 신인 선수상을 받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다.

1차전에서 6-3으로 승리한 넥센은 2차전에서는 정규시즌 20승 투수인 앤디 밴헤켄을 선발로 내고도 2-9로 패했다. 하지만 이날 3차전 승리로 시리즈 전적을 2승1패로 만들며 다시 앞서 나갔다. 넥센은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창단 이래 첫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정규시즌 1위 삼성 라이온즈와 겨루게 된다.

플레이오프 4차전은 31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8회초 1사에서 넥센 유한준이 솔로홈런을 치고 홈인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PO 3차전 30일

■잠실

팀				합계
넥센	010	040	010	6
L G	000	010	010	2

△승 = 오재영(1승) △패 = 리오단(1패) △홈런 = 강정호 1호(2회1점) 유한준 2호(8회1점·이상 넥센)

주말의 스포츠월드

맨시티 '반전' vs 맨유 '상승세'

2일 첫 '맨체스터 더비'

최근 3경기에서 무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진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승점 13점으로 리그 8위에 랭크돼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즌 첫 '맨체스터 더비'가 오는 주말(11월 2일·한국시간)에 펼쳐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경기로 치러질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는 팀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맨유는 승점 3점을 챙겨 리그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승점 17점으로 리그 3위에 올라 있는 맨시티지만 이번 승리가 더 간절히 느껴지는 쪽은 맨시티다.

맨시티는 30일 홈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14~2015 캐피털원컵 16강전에서 0-2로 패했다.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켰으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1로 패했고 22일 CSKA 모스크바와 가졌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맨시티는 바에에른 뮌헨, AS 로마에 이어 E조 3위에 랭크되며 탈락위기에 놓였다.

맨시티는 이번 더비마저 패한다면 웨스트햄(승점 16점), 아스널(승점 14점), 스완지(승점 14점), 리버풀(승점 14점)의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뀐다. 최근 침체 속에서 맨유와의 라이벌전마저 패한다면 팬과 언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다비드 실바는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날 야야 투레도 부상으로 후반에 교체됐으나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맨유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두며 시즌 초반의 부진을 씻고 있다. 루니의 복귀도 힘을 더하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30일 웨인 루니가 다음달 2일 열리는 맨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팀 연습 도중 발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루니는 하루 휴식을 가진 뒤 캐링턴 훈련장에 복귀해 팀 훈련에 참여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 판 할 감독은 루니를 선발 출장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맨유는 라다멜 팔카오와 루니가 함께 복귀하는 이번 더비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루니는 지난달 27일 웨스트햄 전에서 상대 선수 스튜어트 다우닝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행동으로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당해 그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한편 지난 시즌 맨체스터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모두 승리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조호견 대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첨병역”

이노그리드, 2016년 상장 추진… 리더 기업 역할 자신

“국내 최초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클라우드 산업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와 만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통 클라우드를 설명할 때 IT인프라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기술이라고 설명한다”면서도 “단순히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클라우드를 ‘차세대 IT’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는 자신의 차를 구매하고, 몇 년 단위로 교체하고 엔진 오일·타이어 등을 바꿔가는 행태에서 렌탈로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기사까지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유지보수까지 직접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로의 모습인 것이다.

클라우드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N드라이브나 유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다. 과거 휴대전화 내에 전화번호나 사진 등 각종 파일들을 다른 디바이스로 옮기려면 선을 연결해 PC를 거쳐 파일을 전송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 내에 각종 파일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조 대표는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Any Time, Any Device, Any Where’ 이 세가지의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국내에 보급되기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한 국내 최초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6년 그리드 컴퓨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노그리드는 시장 수요가 적어 사업에 변화를 줬다. 결국 2009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 이후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son@

한국의 클라우드 빅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회사 설립 10년째인 2016년 클라우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IT 중소·벤처기업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는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는 법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미국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다만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외부 환경이나 역량이 올라가면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이 발목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몇년 전부터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오가면서 중소·벤처 사업자들이 시장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법안 통과 뒤 사업을 시작하라는 권유에 실행이 더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내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가 예상되면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이노그리드 역시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이후를 이미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이후 이노그리드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국내 대표 솔루션 사업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SK가스 발전업계 영향력↑

동부발전당진 인수 결정

SK가스는 29일 밤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몇몇 매체에서 SK가스의 동부발전당진 인수 보도가 나왔지만, SK가스는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인수가액은 총 2010억원으로 SK가스와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각각 45%와 15%다. 이후 SK가스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은 공동 투자자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동부발전당진은 약 25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160MW급 석탄화력발전소다. 사실상 민간이 석탄사업발전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매물이라는 점에서 발전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당초 시장 예상가격은 3000억원대였지만 예비 송전선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전은 발전소 부지에 건설된 기존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송출하도록 허가했다가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정책에 따라 예비 송전망을 따로 건설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시장가격이 1000억원 가량 낮아졌다.

SK가스는 “송전선로 문제는 동부발전당진 지분 40%를 보유한 동서발전 측에서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라며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석탄발전 사업을 위해 2100MW급 고성그린파워를 인수한 SK가스는 이번에 동부발전당진의 최대주주에 올라 3260MW의 발전용량을 갖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본격 발돋움하게 됐다.

/김민준기자 mjkim@

LGD, 세계 최소 스마트폰용 LCD 개발

스마트폰 시장에 또다시 두께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LG디스플레이(사장 한상범)가 베젤(테두리)을 신용카드 두께(0.8㎜)보다 좁게 만든 스마트폰용 5.3인치 풀HD LCD를 선보였다. 이에 고해상도 제로 베젤 경쟁에서 한발 앞서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네오엣지 모듈공정 기술과 AIT(어드밴스드 인셀 터치)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모듈(백라이트를 탑재한 패널, 터치 포함) 기준 베젤 폭 0.7mm를 구현한 5.3인치 풀HD LCD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왼쪽과 오른쪽 베젤 폭이 0.7㎜로, 풀HD 이상 고해상도 LCD로는 일본 JDI가 올해 선보인 0.9㎜ 제품을 뛰어넘어 최소 베젤 폭 기록을 경신했다.

기기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화면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어 대화면 스마트폰에 적합하고, 그립감과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제품에는 네오에지로 불리는 첨단 모듈공정 기술과 AIT(어드밴스드 인셀 터치)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다.

김병구 개발그룹장은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이중근 부영회장, ‘르완다’에 교육기자재 지원

/부영그룹 제공

디지털 피아노·칠판 기부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오른쪽)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폴 카가메’ 아프리카 르완다 대통령과 만나 디지털 피아노와 칠판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기증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그동안 동남아 14개국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6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했다.

한국의 졸업식 문화를 전파해 민간외교와 국가 간 문화교류에 한몫을 담당해왔다. 그는 이러한 교육기부 활동을 아프리카지역으로 넓혀 추진 중에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커피시장에 빠진 '이색 스펙' 기업들

타일 제조·건설자재·무역·콘텐츠 업체 등 다양

커피 시장에 진출해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다수는 식·음료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유통업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이미 유통 산업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폭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커피 시장에도 전혀 뜻밖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커피업계에 출사표를 던진 브랜드가 있다. 타일제조업·건설자재업·무역수출업·디지털 콘텐츠업 등 언뜻 보기에도 커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異)업체들이 커피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도심 속 동물원' 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주커피'의 모기업은 타일제조업체인 '태영세라믹' 이다. 태영세라믹은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타일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싱글 파이어링(single firing) 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타일 제조기업으로 지난 2012년 자회사 태영F&B를 설립하면서 주커피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주커피는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원이라는 독특한 매장 콘셉트로 기존 커피 브랜드와는 다른 뚜렷한 차별점을 갖고 있어 인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전지현 커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드롭탑(DROPTOP)'은 건설자재 생산 전문 업체인 다도해운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다. 다도해운은 2003년 세계 최초로 해저 수심 100m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재료를 생산해내는 준설장비 개발에 성공해 부산신항·울산신항만·광양컨테이너부두 공사 등 국내의 굵직한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다도해운은 2010년에 자회사 다도글로벌을 통해 커피전문점 드롭탑을 론칭했다. 론칭 초반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기용해 단시간 내 대중의 인지도를 높게 끌어올린 후 '야왕' '참 좋은 시절' '내일도 칸타빌레' 등 인기 드라마에서 활발한 PPL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역시 커피 프랜차이즈인 빈스빈스를 운영하는 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의 대표는 무역수출입 업체인 '아이오트레이딩'의 대표로 재직 중인 김기환 씨이다.

2006년 빈스빈스를 론칭한 김기환 대표가 메뉴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정도로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빈스빈스의 대표 메뉴인 아이스크림 와플과 스트로베리 와플이 김 대표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빈스빈스, 달콤커피 '부산광안리점', 위메프 'W카페', 드롭탑 '대천휴게소 상행점 매장', 주커피 매장.

커피와 음악이 함께 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달콤커피'의 모기업은 다날엔터테인먼트다. 이 업체는 음악 서비스와 스타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 회사로 온·오프라인을 관통하는 신개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달콤커피를 만들었다. 다날엔터테인먼트 측은 음악 서비스인 '달콤뮤직'과 달콤커피를 결합해 다양한 문화 마케팅을 선보이며 음악과 커피를 콘셉트로 기존의 커피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벌이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시작한 'W 카페'를 시작했지만 반응이 좋아 현재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W 카페는 테이크아웃을 목적으로 한 반값 커피라는 당초 운영 콘셉트에서 한발 더 나가 신메뉴 개발을 통해 질적 프리미엄 커피전문점으로 입지를 갖춰나갈 전망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뜨끈한 면 요리'

찬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아닐까 싶다. 후루룩 넘어가는 쫄깃한 면발과 갓 뽑아낸 육수로 만드는 면요리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닭칼국수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35㎉ / 조리시간: 60분

[재료] 밀가루 2컵, 날콩가루 1/2컵, 닭고기 1마리, 바지락 150g, 애호박 1개, 청고추 4개, 홍고추·통생강 각 2개

[양념] 대파 2뿌리, 다진 마늘 1작은술, 깨소금·고춧가루·참기름 각 약간, 다진 파 1큰술

1. 밀가루와 날콩가루를 반죽해 젖은 면보로 싸서 1시간 가량 숙성시킨 후 반죽을 얇게 밀어 곱게 채 썰어 밀가루를 뿌린 쟁반에 넓게 펴둔다.
2. 닭은 대파와 생강을 넣어 물러질 때까지 삶은 후 살을 찢어서 다진 파·다진 마늘·고춧가루·참기름을 넣어 무친다.
3. 바지락은 찬물에 끓여 육수를 준비한다. 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짠 후 준비한 양념으로 볶는다.
4. 바지락 육수에 찬물을 1컵 보태어 끓이고 ①의 칼국수를 넣고 끓여 그릇에 담고 ③의 닭살무침과 ⑤의 호박을 얹어 낸다.

◆국수냄비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345㎉ / 조리시간: 70분

[재료] 사태 400g, 가래떡·국수 각 200g, 양파 1개, 당근 1/2개, 표고버섯 4개, 실파 20뿌리, 달걀·쑥갓 각 2개

[양념] 시판 장국·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사태는 통마늘을 넣고 삶아 건져서 식으면 5㎝길이로 납작하게 썬다.
2. 고기 삶은 국물은 기름기를 없애고 간장·소금·후춧가루로 간한다.
3. 채소와 5㎝길이로 납작하게 썰고 달걀도 지단을 부쳐 같은 크기로 썬다.
4. 국수는 넉넉한 물에 삶아 찬물에 헹궈 건진다.
5. 전골냄비에 떡·채소·계란 지단을 돌려 담고 가운데에 국수 삶은 것을 얹은 다음 육수를 부어 끓인다. 마지막으로 쑥갓을 얹어낸다.

◆잔치국수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625㎉ / 조리시간: 25분

[재료] 소면 100g, 호박·당근 각 1/4개, 표고버섯 1개

[육수] 국물용 멸치 한줌, 물 4~6컵, 다시마 10㎝×10㎝ 1장, 국간장 20g

[양념] 간장 1/2큰술, 설탕 1/2작은술, 참기름·깨소금·다진 파·다진 마늘 각 약간

1. 호박·청고추·홍고추·당근은 채 썰어 소금 간을 해서 각각 볶고 계란은 지단을 부쳐 채소와 같은 크기로 채 썬다.
2. 표고는 채 썰어 재워두었다가 프라이팬에 국물 없이 볶아낸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소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후 1인분씩 사리 지어놓는다.
3. 분량의 다시마·멸치·물을 넣어 육수가 끓으면 멸치는 건져내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춘다.
4. 볼에 사리 지은 국수와 고명을 올린 후 육수를 부어준다.

헬로키티 '핫초코라떼'

나뚜루팝, 11월 1일 선봬

천연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대표 노일식)이 따뜻한 '핫초코라떼 2종'을 11월1일 출시한다.

'핫초코라떼 2종'은 헬로키티를 접목해 깜찍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핫초코 제품으로 민트맛과 딸기맛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품은 헬로키티 4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귀여운 헬로키티 컵홀더와 함께 헬로키티 얼굴을 라떼 아트로 표현해 깜찍함을 더했다.

'헬로키티 민트 핫초코라떼'는 민트와 핫초코가 어우러져 상쾌함과 깔끔한 뒷맛을 느낄 수 있다.

'헬로키티 베리 핫초코라떼'는 진한 핫초코에 딸기향을 첨가해 딸기초코퐁듀를 연상케 하는 제품이다. 가격은 모두 3900원.

나뚜루팝 관계자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맞춰 달콤하고 따뜻한 핫초코라떼를 출시하게 됐다"며 "나뚜루팝의 헬로키티 제품과 함께 포근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일기자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개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호텔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이창영(왼쪽부터)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총지배인, 김석중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패트릭 바젯(Patric Basset) 아코르그룹 아시아지역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케이크 커팅식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진 찍어 응모하면 선물이~

다양한 상품 준비된 '핼러윈 인증샷 이벤트'

31일은 '핼러윈 데이'다. 핼러윈 하면 새로운 놀거리와 추억거리가 되는 핼러윈 분장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이 분장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면 푸짐한 선물이 내 손에 가득 차는 '핼러윈 인증샷' 이벤트가 핼러윈을 더욱 즐겁게 한다.

먼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오감만족 아트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다음 달 2일까지 '집 나간 유령을 찾습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사동 거리에 숨어 있는 유령 'Trick or treat 맨'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이 곳에 방문하면 30% 할인된다. 또 악어 트릭아트를 배경으로 공포와 익살을 주제로 한 인증샷 이벤트가 이어지며 회사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는 '핼러윈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연다. 스파존에 마련된 핼러윈 포토존에서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후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총 20명을 추첨해 워터파크&스파 이용권을 준다. 이외에도 귀여운 호박으로 변신한 친구들의 댄스 공연과 함께 방문객에게 캔디를 나눠주는 '핼러윈 그리팅'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에버랜드에서 펼쳐지는 '핼러윈 호박 헌트' 이벤트는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포시즌스 가든에서 호박을 들고 있는 꼬마 유령 다섯 개를 찾아 인증샷을 찍는 프로그램으로 행사에 참여하면 핼러윈 초콜릿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에버랜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비 분장을 하고 초청가수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호러클럽'과 어두운 사파리를 달리는 '호러 사파리' 등을 즐길 수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는 '무서운 사진 콘테스트'가 핼러윈을 맞이한다. 곳곳에 비치돼 있는 핼러윈 복장을 착용하고 트릭아트 작품에서 찍은 인증샷을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쿠아플라넷 시크릿 박스'가 전달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편백나무가 뭐길래"

나무 추출물 함유 생활용품 출시 잇따라

기존 화장품에 많이 쓰이던 나무 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한 생활용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애경에스티는 최근 분비나무의 가지와 잎에서 추출한 천연 수목수를 배합해 삼림욕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소취제 '홈즈 에어후레쉬 트리메이드'를 출시했다. 수목수와 소취 성분의 배합으로 악취 성분을 제거하고, 수목수에 함유된 푸른 잎 알코올·보르네올 등의 성분이 상쾌함을 지속시킨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한킴벌리가 출시한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는 피톤치드 성분의 편백나무 추출물과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 카렌듈라 오일을 적용한 제품이다. 모나리자도 편백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아이스 아쿠아' 물티슈를 선보였다.

또한 애경의 2080 어드밴스 치약은 자작나무껍질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친구·연인과 즐기는 '핼러윈 파티'

쇼핑·놀이 함께하는 이벤트로 자리매김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연령과 취향을 고려한 핼러윈 이벤트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코스튬과 같은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루이스클럽은 쇼핑족들을 위해 매장을 핼러윈 분위기가 물씬 나게 꾸몄다.

핼러윈 데이 당일 오후 9시부터는 '루이스클럽 핼러윈 파티'를 진행, 디제잉 파티·페이트 타투 행사·럭키드로우 등 화려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끈한 밤'을 보내고 싶은 솔로라면 '바 호핑(Bar Hopping)' 방식의 파티를 눈여겨볼 만하다. 바 호핑이란 한 장소를 벗어나 바·라운지·클럽 등을 돌아다니는 파티 형식이다.

맥주 브랜드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31일 이태원 일대에서 '샤인 인 더 다크'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마노핀에 꾸며진 티켓 부스에서 시작해 클럽 라보·그릴파이브 타코·이구아나·다이스 등을 돌며 핼러윈 콘셉트 사진 촬영·페이스 페인팅을 즐길 수 있다.

연인과 함께 다이나믹한 핼러윈 데이를 보낼 수 있는 이색 장소도 있다.

명동의 공포체험관 호러킹덤은 기존 체험관을 핼러윈 콘셉트에 맞춰 재구성한 '스크림 패키지'를 마련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총 4개의 존에서 극한의 공포를 선사하는 '좀비던전' 이 외에도 실제로 공포영화 속의 주인공 혹은 좀비로 변신해 색다른 공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

이화의료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지난 29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중국의 슈베이인민병원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최신 의학 정보와 암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차례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소 경부절개를 통한 비디오 흉강경 흉선절제술(슈 위성 슈베이인민병원 부원장) ▲부인과 자궁경의 임상 응용(인 시양화 슈베이인민병원 교수) ▲이화의료원 부인암 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수술(주웅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슈베이인민병원은 중국 양쪼우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1900년 개원해 매년 2만5000명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외국인도 사로 잡는 셀카봉 열풍!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셀카봉'이 외국인들에게도 단연 화제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코스모진 관광연구·개발(R&D) 연구소가 최근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466명을 대상으로 '한국 가을 단풍구경 시 가장 이색적으로 느껴진 것'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24명)가 '셀카봉 열풍'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셀카봉을 접해 본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 편리함에 반해 지인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셀카봉을 다량 구매하기도 한다. 또 어디에서나 너나 할 것 없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풍경이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셀카봉에 이어서는 자전거 하이킹족이 외국인들의 시선을 모았다. 26%(121명)가 선택한 하이킹족은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해 있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외국인들의 눈에 쉽게 띈다.

/연합뉴스

그 다음으로 이색적인 모습은 15%(70명)이 선택한 '한결같은 등산복 패션'이었으며 일교차가 큰 날씨 등도 외국인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다. /황재용기자

좋은 기억,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제 **경증치매어르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1577-1000 | 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❸
가족상담,
교육까지!

'마스터 치프' X박스원 인기 살릴까

11월 11일 헤일로 완결판 상륙… 원하는 미션 바로 플레이 가능

'마스터 치프의 영웅담'이 또다시 재현될까.

전 세계적으로 6000만장 이상 판매된 전설적인 FPS(1인칭 슈팅게임) '헤일로' 시리즈의 완결판이 11월 11일 한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어 게이머들이 흥분하고 있다. '흥행보증수표'라는 명성답게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비디오게임기 'X박스원'의 판매도 반등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45개 캠페인 임무 잠금 해제

이같은 기대감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마련됐다.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예약판매에 앞서 기자와 유저를 상대로 사전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처음 공개된 '헤일로: 더 마스터 치프 컬렉션'은 전설적인 영우 마스터 치프의 모든 이야기를 한 패키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헤일로: 전쟁의 서막 애니버서리' '헤일로2: 애니버서리' '헤일로3' '헤일로4' 등 시리즈의 모든 내용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45개에 달하는 모든 캠페인 임무가 잠금 해제돼 있어 원하는 미션에서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조나단 세갈 수석 매니저가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일로' 게임화면.

조나단 세갈 수석 매니저는 "'헤일로'를 접해보지 못한 게이머들도 손쉽게 게임의 재미에 빨려들 수 있다"며 "이미 '헤일로'를 경험한 게이머들은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것처럼 마스터 치프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만나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만큼이나 헤일로가 전해주는 그래픽의 화려함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다. 초당 60프레임으로 X박스원에 최적화된 섬세한 전투장면은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고전 SF영화 '스타워즈'를 블루레이로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실제 총기의 사운드를 녹음해 사용했다는 음향효과는 가슴까지 뛰게 만들었다.

◆'헤일로5' 베타 이용권 포함

'헤일로5: 가디언즈'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있다. 멀티 플레이 베타 이용권을 통해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7일까지 즐길 수 있다. 또 5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실사영상 '헤일로 나이트폴'도 게임 세계관 이해를 돕는다.

한국MS는 11월 7일까지 동서게임몰,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에서 예약판매를 할 예정이다. 예약 판매 제품에는 게임 타이틀 본품과 함께 3개의 해골 아이템이 들어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김성근 감독, 야구게임 홍보 모델로

김성근(사진) 한화 이글스 신임 감독이 인기 야구 게임 홍보 모델로 변신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에이스프로젝트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이하 컴프매)'의 공식 홍보 모델로 김성근 감독을 발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컴프매는 이용자가 프로야구 감독이 되어 팀을 운영해가는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김성근 감독은 컴프매 홍보 모델로서 관련 광고 출연과 함께 게임 내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도 갖는다.

컴투스 측은 "김성근 감독의 새 홍보 영상은 2014 한국시리즈 기간에 맞춰 공개된다"며 "야구장에서 볼 수 없던 김성근 감독의 색다른 모습이 이용자와 야구팬의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윤희기자

'아이러브커피' 헬로키티 업데이트

파티게임즈의 인기 시뮬레이션 게임 '아이러브커피'가 헬로키티 업데이트를 벌인다.

파티게임즈는 헬로키티의 국내 디지털 사업을 담당하는 산리오 디지털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헬로키티 아이템을 아이러브커피에 대거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이러브커피는 헬로키티 테이블과 소파, 주방용품, 바닥장식 등 다양한 헬로키티 아이템 27종으로 꾸며진 '헬로키티 전용 테마카페'를 공개했다. 모든 아이템을 30~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올인원 묶음상자'도 나왔다.

한편 아이러브커피는 커피와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커피숍 경영 게임이다.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듯한 생생한 재미가 특징으로 2012년 7월 출시 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장윤희기자

게임업계 할로윈 이벤트 풍성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게임업계가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국적 분위기를 느끼며 특별한 게임 아이템도 얻는 기회다.

먼저 우주 게임에서 할로윈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SF 전략 모바일 게임 '세컨어스'의 할로윈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미지의 행성을 배경으로 한 이 게임은 할로윈을 맞아 우주 곳곳에 호박, 해골, 무덤 등의 아이템을 배치했다. 이용자들은 할로윈 아이템을 제거할 때마다 게임 재화 '엔트리움'을 보상으로 받는다. 할로윈 아이템은 매일 무작위로 생성된다. 김상민 엔트리브소프트 사업전략실 차장은 "세컨어스는 155개 국에서 서비스되는 인기 게임"이라며 "세계적 축제 할로윈을 맞아 푸짐한 경품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즈니 게임도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난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인기 만화영화 '겨울왕국'의 게임 버전 '프로즌 프리폴'에 '할로윈 맵'을 추가했다. 할로윈 맵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3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게임 곳곳에 유령과 사탕 등 할로윈 관련 새로운 아이템들이 등장한다. 10개의 얼음왕국 할로윈 호박도 수집할 수 있다. 이 게임은 겨울왕국 주인공 안나와 엘사가 등장하는 퍼즐 게임이다. 만화영화 흥행에 힘입어 전세계 5000만 내려받기를 돌파했으며 다음달 카카오 게임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댄스 게임도 할로윈 분위기다. 넷마블의 인기 온라인 댄스게임 '클럽 엠스타'는 업데이트를 통해 마녀 빗자루, 해골 티셔츠, 거미줄 바디페인팅, 호박등불 등 30여 종의 할로윈 아이템을 새로 내놨다. 이밖에 하얀셔츠와 조끼, 시스루 원피스, 소라머리, 바가지 뱅헤어, 유니크 웨이브, 실버 뱅목걸이 등 50종이 넘는 남녀 패션 아이템도 공개했다.

임형준 넷마블 본부장은 "할로윈 분위기로 캐릭터를 멋지게 꾸민 이용자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며 "각종 할로윈 아이템으로 이색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복지 대타협론’ 철학 같지만 시각은 달라

김무성·문희상 “정부가 복지 책임져야 한다”
“고통 분담” “더 늘려야”… 수준 놓고는 이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복지 수준과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문 위원장은 “복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철학에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복지 수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김 대표는 현재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야가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위원장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해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지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안보대화 개막 정홍원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서 24개국, 3개 국제기구 차관급 대표자들과 기념촬영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입주업체 경영난에 폐업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첫 사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1곳이 경영난을 겪다가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인 (주)아라모드시계는 지난 29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통일부가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05년 10월 개성공단에 진출해 시계 포장용 케이스 등을 생산해왔지만, 2012년 이후 수주 물량이 줄어 연매출이 30만 달러 정도로 떨어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것은 2009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로는 첫 사례다.

아라모드시계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따라 정부로부터 남북 경제협력보험금 10억원을 수령했지만, 이를 반납 기한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받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총 18곳에 달하고, 미반납 금액은 460억원 가량 된다.

앞으로 이들 가운데 청산을 결심하는 업체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아이폰, 두자릿수 점유율 올릴까

기자 수첩
정혜인 <경제산업부 기자>

31일 드디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했다. 이미 예약판매로 10만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4’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두자릿수로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화면 아이폰의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온 것은 예상 밖이다. 국내에서 외산 스마트폰이 성공한 전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아이폰이 꾸준히 마니아층을 섭렵하며 5~7%의 점유율을 유지한 것이 전부다. 통신사를 끼고 유통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기형적인 현상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단말기 실구매가가 오르자 오히려 애플에게는 호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꾸준히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며 고기능의 고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춘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애플의 성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늘 한정돼 있었다. 아이폰이 점유율을 조금씩 끌어올린다면 그만큼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이 더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어진다. 이미 아이폰의 영향으로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는 한편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기도 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제조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건전한 경쟁을 벌이며 소비자 후생을 늘릴 것을 기대한다.

‘에볼라 퇴치’ 군의관·간호장교 파견

국방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로 구성된 군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파견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라이베리아 또는 시에라리온 중 한 국가이며, 전체 파견 기간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약 2개월 검토되고 있다.

1·2·3차에 걸쳐 각각 군의관 2명, 간호장교 3명 파견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발 인원수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회 파견 기간은 현지와 국내 관찰 기간을 포함해 7~9주를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파견되는 인력은 현지에서 1~2주 가량 교육을 받고 3~4주 가량 의료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무가 끝나면 21일간 격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국방부는 “격리 및 휴식은 파견 국가 또는 제3국, 국내 중 1곳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로 결정되면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원자를 모집 중이며 지원자 전원을 선발, 파견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청와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사표 제출”

●청와대는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 청장의 사표 제출에 앞서 29일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도 갑작스럽게 명예 퇴직을 신청해 정부조직법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놓고 여당 및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소방방재청 수뇌부들이 동반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석기 같은 종북 좌파가 대북 비대칭 전력”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남북간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 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 용연공단 내 업체 화재 30일 오후 1시 19분께 울산시 남구 용연공단 내 스티로폼 생산업체인 남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철골조 공장건물 5개 동을 완전히 태우고 인근 솔벤트 제조 업체의 옥외저장탱크에 옮겨 붙은 후 소방관들에 의해 50여분 만에 큰 불길이 꺼졌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취준생에 저리 월세 대출

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특히 공공임대 부족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기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또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밖에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앞으로는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부모의연소득(부부합산)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나이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 대출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를 빌려준다. 대출자는 3년 후부터 갚으면 된다(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선거구별 인구편차 2 대 1 이하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개정하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ydh@

'윤일병 사망' 가해병장 징역 45년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다혜기자

건보공단, 비만 실태 및 해결 방안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30일 서울시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약 200여 명의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비만 관리 현 주소와 보험자 역할' 정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부인회총본부 조태임 회장, 헤럴드경제 김태열 기자, 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박종헌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 우리나라 비만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대한비만건강학회 오한진 박사는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전제하고, 생활 습관에서 오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 식이습관 조절 및 정기적인 검진을 당부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조태임 회장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비만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단맛에 익숙해지고 패스트푸드에 길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을 개최한 서울지역본부 임재룡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이라고 했다"며 "유엔(UN) 총회에서 '비만이 흡연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2조7000억원 들어가는 현실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하는 공단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잡지 역사를 한눈에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2014를 찾은 시민이 시대별로 분류된 잡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주민대표 온라인투표 의무화

내년부터…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도입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투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몇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 입주자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투표도 병행한다.

온라인투표는 주민 참여율과 투·개표 정확성을 높이는 것 외에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 달부터 전면 공개되며,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윤다혜기자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 입혀"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다혜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Стриптиз-маньяк открыл кампус

metro Hongkong

哈囉喂同你玩

핼러윈 호박에 신난 대왕판다

홍콩 오션파크에서 핼러윈 축제가 한창이다. 놀이공원 여기저기서 귀신이 출몰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동물들도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홍콩에서 태어나서 자란 북극여우는 핼러윈 호박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국보인 대왕판다 잉잉과 너구리판다 타이산은 자신의 얼굴을 닮은 호박 장식과 개구쟁이처럼 노는 모습으로 관람객을 웃겼다.

metro France

permis, l'ado parcourt 560 kilomèt
oiture pour rejoindre sa belle

여친 보려고 무면허로 567km 달려

프랑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무면허로 567km를 달린 16세 소년이 체포됐다. 소년은 어머니의 자동차 열쇠와 신용카드를 훔쳐 차를 몰았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여자친구가 사는 도시 시내에 진입한 뒤 경찰이 검문을 했기 때문이다. 구류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그는 감정적인 이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현재 이 소년은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다.

metro Brazil

que ensina
bar atacan

R$ 2 mil

부모가 자녀 내세워 가족 절도단 결성해 8kg 전기톱도 훔쳐

브라질에서 부모, 아들 그리고 딸로 이루어진 절도단이 상점의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히우 그란지 두 술 주 그라바따이 지역의 한 농업용품 상점에서 최근 부부와 자식들이 합동으로 도둑질을 벌였다.

브라질 현지 언론사가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직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 자식들이 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명의 아동은 20분만에 판매중이던 농업용 기구, 리트리버 새끼 한 마리, 핸드폰 그리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음악 CD와 상점 주인의 신발까지 훔쳤다.

딸이 리트리버를 안고 상점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들은 8kg에 해당하는 전기 톱을 자가용까지 옮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도난당한 물품의 피해 금액은 2000헤알(약 84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족 강도단'의 절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다른 두 지역에서도 강도 행각을 벌인 전적이 있었으며 범죄 수법은 똑같았다.

상점 주인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가 자식들과 합심해서 도둑질을 벌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진술했다.

브라질 경찰은 이 '가족 강도단' 신원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남성 출입금지! 스트리퍼 기숙사

모스크바 클럽 대표 '러키 캠퍼스' 공개…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 테마로 방 꾸며

최근 모스크바 스트립 클럽 '골든 걸즈'의 대표 러키 리(Lucky Lee·본명 세르게이 리)가 자신의 클럽 스트리퍼들을 위한 호화 기숙사 '러키 캠퍼스'를 공개해 화제다.

골든 걸즈 클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스트리퍼 기숙사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다. 세계 유명 도시를 테마로 한 실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러키 리는 "우리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스트리퍼 스타"라며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숙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한 이유다.

러키 리는 "클럽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이라며 "뛰어난 스트리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키 리의 이름을 본 따 만들어진 러키 캠퍼스의 인테리어는 그의 어머니가 담당했다. 캠퍼스에는 뉴욕, 상하이, 런던, 도쿄, 파리를 테마로 한 다섯 개의 방이 있다. 거실과 주방은 모스크바를 테마로 꾸며졌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뒤로 도시의 특색을 보여주는 소품이 놓여 있다. 캠퍼스의 총 수용 인원은 14명이다.

러키 리는 "이 곳에 살게 될 스트리퍼 스타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모두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만 사는 공간이라 안전에 특히 신경 써 집 안팎 곳곳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건장한 경호원을 배치했다"며 "이곳은 남성은 출입할 수 없는 여성들만의 파라다이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반 고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1958.93 (-2.24)

코스닥 557.86 (-3.17)

금리(국고채 3년) 2.20 (-0.01)

환율(원·달러) 1057.30 (+9.60)

전면개장한 제2롯데월드몰 30일 오전 전면개장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이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개선 나선다

메모리 반도체, TV와 부품사업 전망 밝아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점치기 힘들어

"4분기에는 전사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력인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올 3분기에 큰 폭의 영업실적 감소 현상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4조600억원(확정실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0일 공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 전망과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TV와 부품사업의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도 신기술인 14나노 핀펫(Fin-Fet) 공정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이명진 삼성전자 IR팀장(전무)은 "4분기 D램의 비트그로스(Bit Growth·메모리반도체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낸드플래시도 시장 성장 수준인 한자릿수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용 D램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4분기부터 3차원(3D) V낸드를 탑재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을 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4분기 이후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두영수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상무는 "14나노 핀펫 공정은 수율 램프업(생산량 증가)을 진행 중이며 이미 확보된 거래선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며 "4분기 이후 캐파(생산능력)를 빠르게 높여 내년 연간으로는 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 비중이 3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TV 사업의 경우 4분기에 실적 전망은 밝았다. 이 전무는 "3분기 삼성전자의 평판 TV 판매량은 1200만대 수준이었으며 4분기에는 판매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4분기에만 1500만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전망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 전무는 "4분기에 갤럭시노트4 등 프리미엄 신제품과 함께 중저가 신제품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마케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즉 판매량이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4분기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무는 "업체 간 경쟁 심화로 4분기 무선사업의 실적 향방을 예측하기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명진 전무는 "실적 악화로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주주 환원 정책은 4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

연중 최저 수준

제조업 체감경기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2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8월(72)의 연중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조사 시점에 세월호 참사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난 4월 82였던 BSI는 5월 79, 6월 77, 7월 74, 8월 72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9월에 74로 다소 개선됐으나 이번에 다시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달에는 16~23일 조사가 이뤄졌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수출기업의 BSI가 전월 72에서 70으로 떨어져 2009년 3월(56)이후 5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수기업(76→73)도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78→76)과 중소기업(71→67)을 가리지 않고 악화됐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화, 태양광사업 강화한다

한화큐셀, 말레이시아에 모듈 생산라인 신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태양광 사업을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태양광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의 주요 설비에 대한 신설과 증설을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시장 수요 전망치는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45GW~49.6GW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기존 50GW~57.4GW에서 52.5GW~58.3GW로 상향 조정되는 등 15% 안팎의 상승세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한화큐셀은 29일 말레이시아 공장에 800MW 규모의 모듈 생산라인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2015년초에 착공하해 2016년 초반에는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한화 제공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800MW 규모의 모듈 생산라인을 새롭게 갖출 경우, 기존 독일의 120MW 모듈 생산라인에 더해 920MW 규모의 모듈 생산라인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셀·모듈 대량생산이 한 곳에서 이뤄져 생산 사이클을 최적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김희철 대표는 "말레이시아에 800MW 규모의 모듈 생산설비 신설을 계기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경쟁력과 탄력적인 글로벌 대량생산 조합을 통해 글로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유럽 최고의 태양광 회사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의 또 다른 축인 한화솔라원도 셀과 모듈 생산라인을 증설 중이다.

한화솔라원은 중국에▲800MW 규모의 잉곳·웨이퍼 생산라인 ▲1.3GW 규모의 셀 생산라인 ▲1.5GW의 모듈 생산라인을 갖췄다. 이에 더해 연말까지 셀 생산규모를 1.5GW, 모듈 생산규모를 2GW까지 증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수에 1만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가동 중인 한화케미칼도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산을 통해 2015년 초반까지 폴리실리콘생산량을 1만3000톤까지 끌어올린 이후, 내년 하반기 공정 효율화를 통해 1만50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ksgit@

배관공사 담합 3000억 낭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배관 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건설사 20곳을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혈세 30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누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건설사 20곳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있다.

20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조사 중인 업체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빅7' 건설사가 포함됐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그쳤다.

담합으로 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박성훈기자 zen@

은행들, 고객과 소통 발벗고 나섰다

프로슈머단·자문위원회 운영… 서비스 개선에 도움 판단

은행권이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객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고객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제1기 프로슈머단'을 운영한다.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된 단원은 세무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주부 등 모두 10명이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분기마다 1회의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갖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하게 된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이번 프로슈머단의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함께 더 나은 수협은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부터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IBK 마케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주부 등 21명의 다양한 고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매분기 모임을 갖고, 고객 니즈와 시장 트렌드 등 정보수집을 하게 된다. 또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은행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농협은행 신관 중회의실에서 고객패널 대표 6명과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부문 중점사업에 대한 테마를 정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객패널들은 타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협카드 홈페이지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NH농협카드는 고객패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 이용 할인실적과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패널들의 중요 제안에 대해서도 즉각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응환 NH농협카드 사장은 "고객정보 및 소비자보호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객패널 간담회 등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앞줄 가운데)이 본점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단통법 '불똥' 서울보증 수익 악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달 초 시행되면서 SGI서울보증보험의 영업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휴대폰 대리점 대부분을 보증해주던 서울보증은 단통법 시행 후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고 문닫는 점포가 많아지자 영업손실이 우려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휴대폰 판매점(4만개) 대부분에 보증을 서준 서울보증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번호이동 하루 평균 건수는 지난 8월 1만6000건, 9월에는 2만건을 상회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현재 9000건에 그쳤고 같은 기간 신규가입자는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각각 58%, 46.8% 감소했다.

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기기변경 가입자는 이기간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9월 평균 2900건에서 4800건 상승에 그쳤다.

휴대폰 가입건수가 감소하면서 이동통신업계는 이달 대리점과 판매점의 매출이 20~40% 감소해 이들 중 25%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판매점 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경우 이들 25%가 폐업하면 고스란히 이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어 은행에서는 보증이 불가해,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휴대폰기기를 들여온다.

서울보증의 전체 보험 수익 중 이들 판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으로 지난해(4~12월) 기준 보험료 수익 1조원 중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의 보증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판매점의 영업 악화는 회사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왼쪽)이 The Banker誌와 PWM誌가 공동주관하는 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4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 수상 후 PWM誌 유리 벤더(Yuri Bender) 편집장(오른쪽)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銀, '대한민국 최우수 PB' 수상

PWM 자산관리 1등 브랜드 명성

신한은행은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PB어워드(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4)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영국 금융전문지인 더 뱅커(The Banker)와 PWM(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 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우수 은행을 선정하는 이벤트다.

더 뱅커는 자체 리서치팀을 통해 4000여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매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과 세계 1000대 은행을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요성과지표와 고객서비스, 위험관리 등 모두 1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한PWM가 대한민국 최우수 PB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자산관리 1등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한PWM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PWM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2년 새로이 도입한 PB 브랜드로 은행과 증권의 협업을 기반으로 금융의 경계를 넘어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진형 PB 비즈니스 모델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기업고객본부 임직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농원을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는 이정모 부행장과 기업고객본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은행 제공

‘플랜업 지수형 ELS·ELB’ 5종 출시 신영증권은 31일까지 이틀간 원금손실구간을 45%로 낮춰 안정성을 강화한 ELS 등 지수형 ELS 4종과 ELB 1종을 판매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안정성을 강화한 ELS·ELB는 연 2% 수준의 저금리 환경에서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제공

“양적완화 종료”… 국내증시 파장은?

코스피 큰 여파 없지만 시장 변동성 초래 우려

미국이 예정대로 제3차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연말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앞으로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졌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하되 ‘초저금리는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문구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양적완화는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부터 월간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6차례의 100억 달러씩 추가 축소를 거쳐 이번에 남은 150억 달러까지 모두 종료했다.

연준은 이번 FOMC 성명에서 “향후 각종 경제지표에 근거해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시장을 호평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연준 발표이후 미 다우지수는 장중 110포인트나 떨어졌다. 30일 코스피도 전날 30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인 것과 달리, 소폭 하락출발해 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연준이 확장보다 긴축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제지표에 의존해 금리 인상 시기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액면으로는 중립적이지만, 노동시장 개선을 평가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확장보다는 긴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관전 포인트는 12월 FOMC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구를 바꿀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5대 증권사는 코스피가 연말까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투·대우·삼성·현대증권등 4곳의 코스피 전망치는 평균 약 1900~2070선으로 전망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연말 코스피가 2000선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했다.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예상 지수의 하단은 과거 양적완화 종료 등이 있었을 때의 조정 폭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하단 모두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증시 자체의 ‘레벨업’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경기 회복세에 비해 국내 기업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KB 창조기업 취업박람회 ‘성황’

KB국민은행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120여 우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KB굿잡 창조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은 ㈜대승, ㈜이엔에프테크놀로지, 가온미디어㈜, ㈜켐트로닉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120여개의 우수 이공계기업 및 연구소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신용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창조경제 저변 확대가 창조적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며, KB굿잡 창조기업 취업박람회는 이러한 노력의 좋은 예가 된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취업 컨설팅, 모의 면접, 무료 직무적성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장의인재·여성과학기술인 채용관’, ‘창조경제타운 홍보·체험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인재지원관’ 등을 운영했다.

이날 박람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고양시,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심의관,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국장,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필성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KB국민은행 박지우 은행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 신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민은행 제공

클래식 음악파티 ‘옐로우 라운지’

롯데카드는 30일 유니버설 뮤직과 손잡고 클럽에서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음악파티, ‘옐로우 라운지 롯데카드(Yellow Lounge presented by LOTTECAR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시작된 ‘옐로우 라운지’는 클래식과 클럽음악을 접목한 공연으로, 클래식 콘서트에 대한 편견을 깨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 공연을 펼쳤으며, 오는 11월 29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클럽 옥타곤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을 한다.

‘옐로우 라운지 롯데카드’ 3차 공연에서는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잉골프 분더의 수준 높은 공연과 유명DJ들의 신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롯데카드 고객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연 관람객에게는 음료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니즈를 가진 롯데카드 회원들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여행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OK” 하나SK카드는 30일 해외여행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스마트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항공사, 여행사, 인터넷쇼핑몰 업종에서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내달 15일까지 해당 업종에서 결제한 누적 사용금액에 따라 40만원 이상이면 2만원, 60만원 이상 3만원, 100만원 이상 결제시 5만원이 월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 제공

대우증권, 사장 선임 연기 궁금해

주총 12월로 미뤄

KDB대우증권이 30일 예정됐던 사장 선임 이사회를 돌연 연기했다. 당초 11월14일 예정이던 임시주총회도 일단 12월12일로 한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안건을 제외했다.

공공기관인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정부의 사장 후보자 낙점이 지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현재 사장 후보로는 이영창(53) 전 부사장, 홍성국(51) 부사장(리서치센터장), 황준호(51) 부사장(상품마케팅총괄) 등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은 모두 대우증권 공채 출신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군이다.

이 중에서 이 전 부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안건 지연으로 막판 변수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우증권은 지난 7월 김기범 사장이 임기 도중 사퇴한 뒤 후임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달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해 다음 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임시주주총회를 일단 12월12일로 한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

3명 후보 중 이 전 부사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대우그룹 공채로 입사했다. 지난해 말 준법감시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할 때까지 주요 보직을 거쳤고 최근에는 경영자문역을 맡아왔다.

홍 부사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으며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투자분석부장, 홀세일사업부장, 미래설계연구소장, 리서치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황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대우증권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자산관리영업본부장에 이어 우리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 KTB증권 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현정기자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8주년 특별기획
未生
미생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신은정 그리고 이경영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매주 [금토] 저녁 8시 30분 tvN 방송

SK, 창조경제 대박신화 앞장선다

대전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구축… 벤처 창업 성장 전방위 지원

SK그룹이 창조경제 대박신화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SK그룹은 최근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성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돌입했다. SK그룹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공을 시스템적으로 돕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박'꿈 이룰 창업 생태계 만든다

대전에는 30개 정부출연연구소와 5개 대학, 1300여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석박사급 연구인력만 2만여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연구개발 도시다.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돼 이 지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 그 자체로만 그쳤다. 독보적 기술을 응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과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박대통령 오른쪽) 등 SK CEO들이 예비창업자들과 함께 창의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보육방식인 '디자인 싱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K 제공

SK는 '강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전지역에 창조경제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잠자는 우수 아이디어를 장롱속에서 꺼내 생명을 불어 넣고, 창업을 통해 대박 사례를 만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했다.

SK가 내세운 방법론은 창업주기 맞춤식 지원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창업을 지원하고,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자금력과 마케팅 파워로 후원해 주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실리콘벨리 등 세계시장까지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마스터 플랜도 갖고 있다.

SK는 이런 식으로 대박신화를 만들어 나갈 예비 후보 10개 업체를 선정해 창업지원에 들어갔다. 이들 10개 업체를 포함 대전창조경제센터를 찾아 창업의 꿈을 꾸는 벤처 업체의 성장을 위해 SK는 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구축했다.

◆실리콘벨리 진출 지원

국내 벤처기업의 꿈인 미국 실리콘벨리 진출도 SK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SK식 창업 생애주기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이 미국 본토로 진출을 원할 경우 '글로벌 벤처'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SK텔레콤의 미주 지역 투자 자회사인 이노파트너스와 글로벌 벤처 창업기획사인 랩나인이 글로벌 벤처로 육성하는 '코치' 역할을 맡았다.

이노파트너스는 실리콘벨리에 인큐베이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개발장비 등을 지원한다.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벤처 캐피탈로 500만~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SK는 랩나인과 연계해 실리콘벨리내 창업센터 입주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파트너십 개발, 네트워킹 확대 등을 지원한다.

SK는 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랩나인의 벤처발굴 노하우를 결합해 ▲IoT ▲웨어러블 기기 ▲커넥티드 카 ▲스마트 앱세서리 ▲ 헬스케어 등과 연계된 기술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아슬란으로 수입차 고객 공략"

현대차, 준대형차 시장 '지각변동' 예고

국내 준대형시장을 노린 현대자동차의 야심작 '아슬란'이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아슬란은 지난 5월 부산모터쇼에서 프로젝트명 'AG'로 공개된 바 있으며, 터키어로 '사자'를 뜻하는 '아슬란'이라는 차명이 확정됐다. 2012년부터 개발된 아슬란은 제네시스, 쏘나타에 이어 세 번째로 '플루이딕 스컬프처 2.0' 디자인이 적용되어 간결하고 중후한 스타일로 완성됐다. 프리미엄 모델부터는 박음질 무늬를 적용한 프리미엄 나파가죽시트를 갖춰 차별화했다.

편의장비는 동급 최고수준이다. 모든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8인치 내비게이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HID 헤드램프도 기본 사양이다. 스마트키를 갖고 트렁크 주위에 3초 이상 머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과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헤드램프가 조절되는 어댑티브 헤드램프, 차간 거리 조절과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보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 장비들은 르노삼성 SM7을 비롯한 국산 전륜구동 준대형차 대부분이 갖추지 않은 장비들이다.

엔진은 3.0과 3.3 가솔린 직분사 타입이 탑재됐다. 3.0 엔진은 270마력, 3.3 엔진은 294마력의 최고출력을 나타낸다. 9개의 에어백과 액티브 후드 시스템,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과 차선이탈 경보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김충호 사장은 "중남미·러시아 등의 수요 감소, 일본 업체의 공세, 원화 강세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올해 판매 목표 490만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슬란의 가격은 G300 모던 3990만원, G330 프리미엄 4190만원, 익스클루시브 45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현대차 곽진(왼쪽) 부사장과 김충호(오른쪽) 사장이 아슬란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이란서 요리대회 LG전자는 26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호텔에서 'LG 솔라돔 요리대회'를 개최했다. /LG전자 제공

"새 먹거리 찾기 어렵다"

기업인 가장 큰 고민…내년 내실경영 치중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어렵다."

국내 기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신사업의 부재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국제경영원(IMI)은 17~23일 국내 기업체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 91.2%가 올해와 비슷하거나(56.8%) 올해보다 악화할 것(34.4%)으로 전망했다고 30일 전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답변은 8.8%에 그쳤다.

기업인의 절반이 이에 따라 내년 경영방향을 '현상유지'로 설정했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신규사업 발굴(25.6%)이나 해외시장 확보 및 진출(11.2%)을 최우선 경영 현안으로 꼽은 곳은 많지 않았다.

이들 CEO와 임원은 내년 기업경영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53.6%)과 수출여건 악화(28.0%), 유동성 부족(7.2%)을 꼽았다.

한편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적 요인으로 '신성장동력 부재'(39.2%)를 꼽았고 내수침체(37.6%), 가계부채(9.6%), 환율불안(9.6%), 저출산·고령화(3.2%)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최대 대외 위협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61.6%),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금리인하(30.4%), 유로존 침체 지속(4.8%) 등을 꼽았다.

전경련 측은 "기업인들이 저성장기 경제환경에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넣어주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부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

시민발언대의 이면

권기봉의 **도시산책** <100>

요즘 서울시청사인 서울시민청 지하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연단에 올라가 10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젊은이에서부터 학교 선생님에게 그 동안 아쉬웠던 점을 쏟아내는 학생까지 연령도 내용도 다양하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청계광장에서 '할 말 있어요'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발언대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듬해 1월부터는 새 서울시청사 지하에 있는 시민청으로 옮겨 계속하고 있는 일명 '시민발언대'의 풍경이다.

실제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명예훼손, 정치적인 발언을 제외하면 그 어떤 주제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 시정과 관련한 의견들은 담당부서로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니 모든 제안이나 주장을 시정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기 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시민발언대는 이름만 다를 뿐 이전에도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주장관이나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었고,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고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두드리거나 왕이 행차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별도의 고충처리기구를 비롯해 '국민신문고'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그리고 기업들은 나름의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민원이나 의견 개진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의견 수렴 구조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감시견'인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서울시민청 지하를 비롯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발언대'의 이면에는 언로가 막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숨어 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82년생 여자, 직업·결혼 사주 궁금해 전문직이 적성, 3~4년후 인연 있을듯

Q bellyii 여자 82년 02월 12일 아침 7시 32분

여자로 82년생입니다. 02월 12일 로 아침 7시 32분에 태어났습니다. 사주를 알고 싶어요. 제 직업, 결혼 등 전반적인 거 알고 싶네요. 진심으로 응원해 드립니다. 아자!!★ 언제나 힘내시고! 앞으로도 쭈욱~ 많은 사랑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해요.

A 예로부터 우리는 예지력을 갖춘 민족으로 통했습니다. 선조들은 육갑(六甲)을 짚을 줄 알았고 앞날의 길흉을 점쳤습니다. 양반과 농민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이 간지(干地)의 반복 순환체계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고 절대적으로 금하는 게 있었으며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때를 알아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왔습니다. 육십갑자(六十甲子)중에 개띠생(壬戌)으로 태어나 생일이 병인일주(丙寅日柱)로 표기됩니다. 특성으로는 기품이 있고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성품이 있으나 속전속결이라 실패가 잦습니다. 실패에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싫증을 내고 또는 다른 직업이 더 좋아보여서 이직을 하여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면 막연한 장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겠지요. 공부를 잘 했다면 약사·의사가 되었겠으나 운세의 흐름에서는 문화, 예능에 재능이 있고 디자인·미용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마(驛馬)로 활동적이지만 기분의 변화가 심하여 돈거래 시에는 평생을 신중히 하여 신용을 지키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홍염살(紅艶殺) 즉 도화살과 같은 것으로 미모와 매력이 있어 자기 방식에 맞는 연애를 하다가 길게 인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결혼해서도 친정을 돌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댁에서 뒤늦게라도 수혜를 받게 되니 시댁과의 갈등이 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면 아무래도 인생행로가 탄탄하게 되겠지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일지가 합하고 식재관(食財官:자식, 남자)이 들어오는 2017.2018년 운에 있으며 말띠·돼지띠와 연분이 있군요. 화(火)기운이 잠재되어있어 골절·자궁 건강이 중요한데 효신살(梟神殺)로 자식을 낳을 때 건강에 유의하여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5	7			9			2
3			2					
				3				
	7			4	2	6		
		4	3		5	1		
		8	1	7			3	
				2				
					7			3
9			6			7	5	4

			6			4	7	
2					7	1	9	
			2		3	6		5
					1			
	8	2		6		9	3	
			3					
8		1	7		4			
	6	3	1					9
	5	9			6			

스도쿠 정답

8	5	7	4	6	9	3	1	2
3	4	1	2	5	8	9	7	6
2	6	9	7	3	1	5	4	8
1	7	3	9	4	2	6	8	5
6	9	4	3	8	5	1	2	7
5	2	8	1	7	6	4	3	9
7	3	6	5	2	4	8	9	1
4	1	5	8	9	7	2	6	3
9	8	2	6	1	3	7	5	4

5	3	8	6	1	9	4	7	2
2	4	6	5	8	7	1	9	3
9	1	7	2	4	3	6	8	5
3	7	4	9	2	1	5	6	8
1	8	2	4	6	5	9	3	7
6	9	5	3	7	8	2	1	4
8	2	1	7	9	4	3	5	6
7	6	3	1	5	2	8	4	9
4	5	9	8	3	6	7	2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0월 31일 (음 윤 9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60년생** 귀빈 대접 할 일 생긴다. **72년생** 능력 밖의 일에 너무 애쓰지 말라. **84년생** 상사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49년생 몸도 마음도 아픈 날이다. **61년생** 하나하나보단 전체를 조망하라. **73년생** 공들인 일은 어렵게 성사가 된다. **85년생**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입단속 조심~.

50년생 주변 시샘은 무시할 것. **62년생** 최선을 다하면 귀인이 나타난다. **74년생** 진정 떳떳하면 비난엔 신경 쓰지 말라. **86년생** 폭풍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온 격이다.

51년생 자녀가 한을 대신 풀어준다. **63년생** 잘잘못 가리는데 에너지 낭비 말라. **75년생** 마음먹은 일 시작할 적기가 왔다. **87년생** 토라진 연인 달래는데 신경 써라.

52년생 민감한 일은 자제할 것. **64년생** 떡을 만들다보면 고물은 묻게 된다. **76년생** 고집을 부려서 왕따 자초하지 말라. **88년생** 유순하게 처신하는 게 이롭다.

53년생 형편에 따르는 게 이롭다. **65년생** 문서 일은 신중에 신중할 것. **77년생** 기대도 안한 일이 달콤한 선물한다. **89년생** 아무리 좋은 일도 반대 있으니 무시할 것.

42년생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라. **54년생** 주거문제에 사소한 걱정이 생긴다. **66년생** 답답한 마음엔 외출이 약~. **7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이야기 꽃 피운다.

43년생 포기하면 속이 편안하다. **55년생** 못마땅해도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보라. **67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79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44년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 받아들여라. **56년생** 술자리 시비는 싸움이 된다. **68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80년생** 일마다 잘 풀려서 힘이 쏟는다.

45년생 공돈이 생겨 한턱 쏜다. **57년생** 큰일을 하려면 작은 문제는 무시할 것. **69년생** 술자리가 길면 허물만 남는다. **81년생** 힘들고 외로운 부모에 전화 들여 보자.

46년생 아랫사람에 묻는 것 주저 말라. **58년생** 결정할 일에 문제가 생긴다. **70년생** 아무리 아쉬워도 부적절한 돈은 받지 말라. **82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안긴다.

47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9년생** 이름이 올라갈수록 겸손할 것. **71년생** 낙관했던 일에 변수가 생긴다. **83년생** 연인의 애교가 무리해도 못이긴 척 들어주라.